

경제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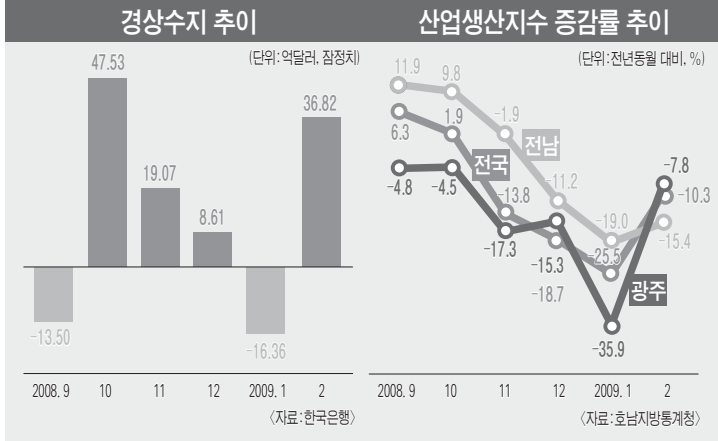
경기 바닥 뚫나, 통계 착시인가

소비자 닫힌 지갑 열릴까

대형마트·백화점 '세일전쟁' ... 반값 판매도

경제지표 반등에 '거봐'
공공언 체감경기 '글썸'

산업생산지수 등 상당수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지표 감소폭이 둔화됐을 뿐 여전히 지표가 낮은 수준이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단순히 '통계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지표 호전=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상당수 경제지표들이 최저점을 찍고 호전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월중 광주 지역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7.8% 감소했지만 전월(-35.9%)에 비해서는 18.2% 증가하는 등 감소폭이 둔화했다.

출하도 1년전에 비해서는 4.8% 감소했지만 한달전 보다는 19.1% 증가했고 재고도 1년전에 비해 3.8% 줄어 들었다.

2월중 수출 실적도 광주가 5억1천100만 달러로 전월보다 4.9% 늘어나면서 4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월중 제조업 업황 BSI는 44로 여전히 기준치인 100이하였지만 전월(41)에 비해 소폭 반등했고 자금사정 BSI도 1월 60에서 2월 68로 좋아졌다.

2분기 제조업 BSI 전망치도 73으로 지난해 2분기이후 4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올해 1분기의 60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해 기업인들은 2분기 제조업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표들의 상당수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최저점에 비해서는 반등해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착시 현상일 뿐, 기대감 과다=그러나 상당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를 나타내는 실업률의 경우 광주가 2월 기준으로 4.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1년전에 비해 1.4%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2월에만 광주의 취업자가 1만명이나 줄어

들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표인 소비자동향지수(CSI)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6개월후의 생활환경 전망 CSI는 3월을 기준으로 전월대비 8포인트 하락한 75로 조사됐다. 경기전망 CSI도 70에서 64로 떨어졌고, 가계 수입전망 CSI도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83을 기록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반값 세일에 나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알아진 지갑으로 선풍 구매에 나서서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다.

주부 김민경(41)씨는 "경제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체감경기는 아직도 최악 수준"이라며 "가장 마지막에 줄인다는 사교육비까지 줄여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정리기자 bungy@kwangju.co.kr

이 사전에 기획해 특가판매하는 '바겐스타' 상품도 선보인다.

이밖에 신세계·삼성카드 론칭 기념 이벤트로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SM5(3명), PAVV(15명), 삼성 넷북(30명) 등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정기세일에 70%가량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정기세일에 10~30% 수준이다.

특히 이번 세일에서는 '나이스 프라이스' 계열의 기획상품, '현대 단독상품전' 등을 열어 유명 볼류 재고 물량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정기세일을 진행, 이번 세일에는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한 브랜드가 참여해 10~30% 할인행사를 펼친다.

또 20만원 이상 구매시 캔조 도자기 시리즈, 우산, 등산배낭 등 사은선물로 증정한다.

빅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의 대형마트들도 매출 규모가 줄면서 지난달부터 파격적인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향토기업인 빅마트는 지난달부터 주요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팔고 있다. 이마트도 창립 16주년 축하행사로 생필품 50% 할인과 함께 식료품 세일에 병행하고 있다.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남도 특산물
싸게 사세요

전남체신청 할인행사

전남체신청은 오는 12일까지 남도 특산품을 최고 3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봄맞이 남도특산물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을 통해 판매하는 이번 행사는 목포·여수·완도·고흥 등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 미역, 멸치, 건어물세트와 광양 매실, 보성 녹차, 나주 배, 영광 굴비 등을 최고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전남 특산품은 1천536개로 지난 2008년에 2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 60곳
정원 3천명 줄인다

대한적십자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중소 규모 60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기관별로 정원의 5~55%를 감축해 모두 2천981명을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력관리공단, 원자력연료, 우원물류지원단 등이 민간 위탁이나 폐지·축소를 통해 517명 ▲특정정보원, 부산항만보안, 표준협회 등이 비핵심 기능 폐지·축소로 487명 ▲가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관 내 중복 등으로 922명 ▲철도시설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조직 효율화로 1천55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봄철 패션워크

지난달 3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09 춘계 서울패션워크(F/W 09/10)에서 모델들이 디자이너 황재복의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달청, 중소기업 대지급 지급범위 확대
광주본부세관장에 진인근씨

내일부터 시행

조달청이 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을 대신해 기업에 대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 제도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지급 대상 확대, 신규선납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

도록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자금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가계약,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및 소액계약 등에도 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관의 대지급 납입기한도 기존 조달청 납입고지 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별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5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1일자로 진인근(54·사진) 조세총괄과장을 광주본부세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진 세관장은 1986년 재무부에 입용된 뒤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거쳐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 '일목장터'
내일 광주상의 대강당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2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일목(一木)정착장터'를 연다.

'일목장터'는 매일 첫 번째 목요일에 중소기업 정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얻도록 하는 정책설명회이다. 조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노.기보 등의 관계자가 나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실업자 1만5천명에 생계비 대출

실업자가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

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5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직업훈련의 기간도 3개

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이 승인되면 최고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1년간이지만 내다가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면 된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주)223-1140, 5210,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건-2번)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지구

상가임대 및 분양

●수원최고상업지역 버스정류장 옆

월드프라자(1~5층) 3월말 준공 금은, 안경점,

브랜드 의류, 편의점, 독서실, 약국, 병원, 한의

원, 학원, 독서실(이비인후과 임점 확정)

●메인도로 35x12x6m 버스정류장 옆 5층건물

송원프라자 (즉시 입주가능)

식당, 편의점, 한의원, 학원, 독서실

●토지 중개 및 개발 컨설팅

●수원 상업지역 최고요지 최저가 매물 다량확보

개발 상담 및 토지중개는
월드 공인중개사사무소
☎ 062) 959-1033, 019-608-3372

금보부동산컨설팅

▶선달매매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전주 194평 2억 2천 2백 20만

현대공인중개사

토지매매

●투자 최적지 (전원주택, 창고, 공장부지)

●국가 신도시 1차단지 안근, 5561㎡ (약 1,682평) 관내지역, 현재 과수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광송간 도로변

●신촌동 준주거지역 대지 337평 평당 2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송간 도로변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수원지구 상업용지

●청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 (평당 470만)

●수원지구상업용지 2000평 22억 (평당 1100만)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

●수원지구상업용지 1400평 122억 8000